

## 2

## 임나 일본부설 (任那日本府說)

## 백제-왜-가야 연합과

## 왜를 향한 뱃길 출발점의 항구 지역

## (1) 미마나(任那)와 일본의 식민지주의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일본이 4세기 말경 부터 시작해서 두 세기 이상에 걸쳐, 남한 지역에 미마나라는 이름의 식민지를 보유했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미마나라는 옛부터 내려오는 임나(任那)라는 지명의 일본 카나 표현이다. 일본 사람들의 임나 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이란 것은, 일본서기를 제외하고는 동양의 어느 역사 책에서도 발견할수 없는, 임나에 대한 그 종잡을 수 없는 기록에서 영감(靈感)을 받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20세기초 한국으로 향한 일본 군사력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흔히 쿠노(1937: 193)가 말하는 식의, 멋대로 날조된 미마나 얘기로 정

<sup>1</sup>고사기 마저도 임나일본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당화 되었다: “일본이 한국땅을 통치할수 있는 권한은, 신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미마나국을 보호령으로 창설한 것으로 부터 유래된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일본 세력의 쇠퇴는, 신라가 미마나에 위치한 일본 총독부를 파괴 한 때부터 시작해서, 최종적 으로는 서기 663년에 중국·신라 연합군이 한국땅에서 일본군을 전멸시킴 으로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토록 했던 때문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까지 한국에 대한 권한을 되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미마나의 창건날자는, 서기 1905년 이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행사했던 종주국 으로서의 기간을 결정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 절에서,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미마나에 대한 구절들을 모두 정밀하게 검토해보려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의 검토로 부터 출발 하겠다.

## (2) 임나: 가야 연맹 (伽倻聯盟) 의 구성원

삼국유사의 다섯가야 (五伽耶) 부분은 (이민수 역: 56-57)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고 있다: “가락국기 (駕洛國記) 에 의하면, 자주빛 끈 하나가 내려와 둥근 알 여섯개를 내려 주었다. 다섯개의 알은 각 읍 (邑) 으로 돌아가고, 한개는 이 성 (城) 에 남아서 금관 (金官) 의 수로왕 (首露王) 이 되었는데, 나머지 다섯개는 각각 다섯 가야의 주인 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금관국이 이 다섯개의 나라속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다섯 가야란 아라 (阿羅) 가야, 고녕 (古寧) 가야, 대 (大) 가야, 성산 (星山) 가야, 소 (小) 가야등이다.”<sup><1></sup>

고대 한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왕국과 가야(서기 42-562년)라고 알려진 성읍 (城邑) 국가 연맹이 있었다. 이기백(1984: 40-41)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된 사료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야가 발생한 낙동강 (洛東江) 하류지역은 원래 변한 (弁韓) 12개 국가들의 영토였다. . . 현대의 김해 (金海) 땅에 자리

잡은 가야는 수로를 [서기 42년에] 첫번째 왕으로 모시고, 본(本)가야로 발전했다 . . . 고령땅의 것은 . . . 대(大)가야가 되었다. 본(本)가야와 대가야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다른 성읍국가들과 연합해서 가야 연맹을 구성했다. . . . 가야연맹은 적극적으로 해상교역 활동에 참여 했었다 . . . 그후 가야는 신라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본가야가 서기 532년에, 그 다음엔 대가야가 서기 562년에, 날로 강성해가는 신라에게 정복 되었다. 낙동강 하류의 다른 군소 국가들도 [아라가야, 고령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등을 포함해서] 똑같은 운명에 빠져, 끝내 가야연맹은 서기 562년에 종말을 고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임나는 가야연맹국 중의 하나로, 그 유명한 통일신라때의 유학자(儒學者) 강수(強首)가 출생한 곳이 었다. 이 기백(1984: 84)은 “(가야의)임나 사람인 강수는 당나라 와의 외교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358)는 강수를 “임나가랑 사람(任那加良人)”으로 기록하고 있다.<sup>2)</sup>

가야연맹이 멸망한 후에, 가야의 지배층은 신라의 지배층 속에 흡수 되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백제를 정복한 신라 29대 무열왕(武烈王, 재위 654-661년)은 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유신(金庾信)장군의 누이 동생과 결혼 했었다.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290)는 “김유신은 경주 사람인데, 그의 12대 조상이 수로(首露)였다. . . . 수로는 [서기 42년] 구봉(龜峰) 꼭대기에서 가락의 아홉개촌을(駕洛九村) 내려다 보았다 . . . 그리고 나서는 한개의 국가를 세웠으니, 이는 가야(伽耶)라 불렀다 . . . 수로로 부터 9대손 구해(仇亥)에 내려오니 . . . 그가 바로 유신의 증조부였다 . . .”<sup>2) <3></sup>

삼국유사(이민수 역: 177)는 고대 한국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가락국(가야)에 대해 짧막하게 언급을 한다음, 다음과 같은 기록을

<sup>2)</sup>히라노(1977)는 서기 532년에 금관가라가, 또 서기 562년에 대(고령)가야가 멸망한 다음, “금관가라는 맨끝왕인 김구해의 봉토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후에 김유신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한다.

했다: “신라 제30대 법민왕(法敏王, 文武王, 재위 661-681년) 원년 3월에, 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내렸다. ‘가야국(伽倻國) 시조의 9대손 구형왕(仇衡王)이 이 나라에 항복할때 데리고 온 아들 세종의 아들인 솔우공의 아들, 서문잡간의 딸 문명황후(文明皇后)께서 나를 낳으셨으니, 시조 수로왕은 나에게 15대 시조(始祖)가 된다. 그 나라는 이미 없어졌지만 그를 장사지낸 묘는 지금도 남아 있으니, 종묘(宗廟)에 합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게 하라.’”<sup>4)</sup>

일본서기(NII: 80)는 서기 562년에 가야연맹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 10개의 가맹국 이름이 가라(加羅), 안라(安羅), 사이기(斯二岐), 다라(多羅), 졸마(卒麻), 고차(古嗟), 자타(子他), 산반하(散半下), 걸손(乞飡), 임례(稔禮)라 하였다. 우리는 이 명단에다 6세기 초에 신라에게 멸망당한 탁순(卓淳), 록기탄, 남가라를 추가하고 또 일본서기가 일본부(日本府)의 대신(大臣)이 주재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임나(任那)를 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서기에서 임나 일본부, 임나국사(任那國司), 임나일본부 집사(日本府執事) 등의 표현을 발견 할수 있는데, 이것들만 보면 임나가 일본에 대해 일종의 식민지 위치에 있었다고 믿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임나집사(任那執事), 임나왕(任那王), 탁순왕(卓淳王), 가라왕(加羅王), 안라왕(安羅王), 졸마한기(卒麻旱岐), 등의 표현이 또 나온다. 이러한 호칭은, 가야연맹의 어느 구성원 에게도 식민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사실 일본서기에서는, 임나지역내의 일본인의 존재와, 토착 임나인의 존재가 별개 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여러가지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인과 임나인 간의 다름,” “일본의 고위 관리는 . . . 임나땅에 오래 거주하면서 . . . 임나와 위장된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임나집사(任那執事)와 일본부집사(日本府執事),” “일본당국과 임나에 대한 교시,” “임나의 일본 관할지역 부락들” 같은 표현들을 발견 할수 있다.

일본서기는 별개의 실체로서, “임나의 하한(下韓)에 거주하는 백제 군령성주(軍令城主)” 같이 임나땅에 거주하는 백제 사람들의 존

재를 암시하는 구절 마저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동되는 기록에다 더해서, 일본서기는 많은 경우에, 가야연맹 전체를 임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절은 일본서기의 유우라쿠(재위 457-470년) 조, 게이타이(재위 507-531년) 조, 킨메이(재위 540-571년) 조에 나타나는 임나관련 기록들을 제시하고, 맨끝절은 이들 기록을 분석해서 임나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 (3) 일본서기의 임나(미마나) 관련기록

임나국사(任那國司)라는 표현은 일본서기에서, 친구들에게 자기처의 미모를 자랑하는 키비의 상도신 타사에 관한 얘기 속에서 서기 463년에 최초로 나타난다: “천황은. . . 멀리서 그 얘기를 듣고. . . 타사의 처(와카히메)를 취해 후궁으로 만들 욕심으로. . . 타사를 임나국사로 임명했다.”<sup>3</sup> <sup>(5)</sup>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표현 역시 서기 464년(NI: 351-352)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신라왕이 임나왕(任那王)에게 사람을 보내 ‘고구려왕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니. . . 일본부(日本府)의 장수들을 보내, 도와 줄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을 전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임나 왕은 이카루가, 오오나시, 아카메도 등에게 신라에 가서 구원해 줄 것을 권했다.”<sup>(6)</sup>

일본서기(NI: 392-393)는 서기 487년 켄조(顯宗)가 죽었을 때, “오히하(生磐)가 임나에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서, 고구려와 내통하며. . . 관부(官府)를 세우고, 스스로 신성(神聖)이라 칭하였다. 임나의 좌로나기, 타갑배 등의 계책을 받아들여 그는 백제의 왕위 계승 예정자(適) 막이해를 이림에서 살해 했다. 그는 대산성을 축조해서 동쪽 지역을 방어하고, 보급물자를 운송하는 항구를 차단시켰다. . . 백제왕이 크게 노해, 공이해와 내두(內頭) 막고해에게

<sup>3</sup>일본서기(NI: 348-349)는 또, “타사의 처는 케히메라고 부르는데, 가쓰라키 소쓰히코(葛城襲津彦)의 아들 타마다 스쿠네의 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군사를 주어, 대산성을 공격토록 명령했다. 이 소식을 듣고 오히는 . . . 일이 뜰데로 안될것을 깨닫고, 임나로 부터 돌아와 버렸다. 그러자 백제국은 좌로나가, 타갑배등 300여명을 죽여 버렸다.”<sup>⑦</sup>

4세기말 이후부터, 호무다(應神)를 뒤쫓아 백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왔다. 한데 그들중 일부는 일본까지 건너가지 않고, 임나지역에 주저 앉기로 결정 했던것 같다. 서기 509년 조에서 일본서기(NII: 7)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백제로부터 도망을 해] 3, 4세대에 걸쳐서 임나 일본현읍(任那日本縣邑)에 와서 살고 있는 백제 백성들을 모두 백제로 돌려보내, 원적으로 복귀시켰다(附貫也).”<sup>⑧</sup>

일본서기(NII: 709)는 서기 512년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했다: “백제는 임나의 삼다리, 하다리, 사타, 무주등 네개 현을 달라고 청했다. 다리의 국수(國守) 오시아마는 품 하기를 ‘이 네개의 현들은 일본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뿐 아니라, 백제에 가깝게 연해있어 아침 저녁으로 (백제와 다리는) 서로 쉽게 통교를 하고, 개와 닭들도 서로 몰려 다녀 어느쪽의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백제한테 주어 한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면, 이들 네개 현을 보전하는 대책으로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백제한테 주어 합치게 해도, 훗날 위태로울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의 땅이 되면 몇년이나 수호할수 있겠습니까?’”<sup>⑨</sup>

일본서기(NII: 8)에 의하면 야마토 조정에서는 백제의 계획에 대한 반론들이 있었다고 한다: “만약 우리가 그 땅을 잘라서 남에게 주게 되면,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것 입니다.”<sup>⑩</sup> 하지만 케이타이(繼體)는 백제 요청대로 임나 네개현들을 백제에 주어 버리려 했고, 그러자 오히네황자(大兄皇子)는 이에 반대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NII: 9): “태중지제(胎中之帝, 應神) 때부터 우리 관가의 나라(官家之國)가 그곳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깊이 생각치 않고 경솔하게 백제의 요청을 받아들여 줄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말들이 야마토 조정 내에서 오고가는 것을 듣게된 백제 사신은

오히네에게 경고를 했다고 한다(NII: 9):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 합시다. 그래, 몽둥이로 머리를 크게 얻어 맞는게 더 고통스럽소 그렇지 않으면 작게 얻어 맞는게 더 고통스럽겠소?”<sup>9)</sup>

일본서기(NII: 11)에 의하면 서기 513년 “백제의 저미문귀 장군, 신라의 문득지, 안라의 신이혜와 분파위좌, 반파의 기전혜와 죽문지등이 모두 함께 조정예 와서, 이문(已汶)과 대사를 백제국에 준다는 은혜로운 칙지를 들었다”고 한다.<sup>10)</sup>

서기 527년(NII: 15) “케나(近江毛野臣)는 6만의 군사를 이끌고 임나로 가서, 신라에 의해 파괴된 남가라(南加羅)과 록기탄을 재건해서 임나에 합치고자 했다. 그때, 큐우슈우의 이와이(筑紫國造磐井)가 반역을 음모했기 때문에 케나의 계획은 어려해 지체 될수 밖에 없었다. 이하위는 매년 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任那)의 조공선을 쫓아 버리고, 케나의 군대가 임나로 가는 것을 저지시켰다.”<sup>11)</sup>

서기 529년조에 일본서기(NII: 17-18)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왕은 하다리 국수(國守) 오시아마에게: ‘우리 조공 사자들은 삐죽삐죽 나온 육지를 피하기 위해 매년 풍파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때문에 물건들이 모두 물에 젖어, 상하고 보기 싫게 된다. 그러니 가라의 다사진(加羅多沙津)을 우리 조공 뱃길의 항구(津路)로 만들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시아마는 케이타이(繼體)에게 그대로 말을 전해 올렸다 . . . . 그 항구를 백제 왕에게 주기위해 . . . 카소네 등 . . . 이 파견 되었다. 이것을 보고 가라왕(加羅王)은 칙사들에게 말했다: ‘이 항구로 말할것 같으면 관가(官家)가 설치된 이래, 우리의 조공을 위한 뱃길 출발점의 항구(津涉) 노릇을 했었다. 어째서 당신들은 그렇게 험사리 이땅의 본래 봉토관계를 위배해서(違元所封限地) 이웃나라에게 주어 버리려고 하느냐?’ 일이 이렇게 되자 칙사들은 내놓고 주어 버릴수가 없게

<sup>9)</sup>일본서기(NII: 9)는 “백제가 저미문귀 장군과 주리즉니 장군을 보내 . . . (천황께) ‘반피국이 우리의 이문땅을 (임나의 동북경계에 있는 지역) 약탈 해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0)</sup>

되었다. 그들은 큰섬(大嶋)으로 되돌아가 별도로 관리(錄史)를 보내(다사진을) 백제(扶余)에 주도록 조치를 했다. 이것때문에 가라는 신라와 작당을 하고, 일본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었다.”<sup>6)</sup>

서기 529년(NII: 18), “가라왕(加羅王)은 신라왕의 딸을 맞이해 아이를 낳게 되었다.<sup>6)</sup> 신라가 그 왕녀를 처음에 보낼때 그녀의 시종으로 100명의 사람을 딸려 보냈다. 가라는 그들을 받아들여 각 현(縣)에 분산 시켰는데, 그들에게 신라 의관(衣冠)을 입도록 허용했다.<sup>7)</sup> 하지만 아리사등(阿利斯等)은 그들의 괴상한 복장에 분개해서 사자를 보내 그들을 신라로 되돌려 보내도록 조치했다. 이에 신라는 크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어 . . . 끝내 도가, 고포, 포나무라 세성을 점령해 버렸다.”<sup>8)</sup> 일본서기(NII: 19)는 서기 529년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임나왕 기능말다간기(己能末多干岐)가 조정에 왔다.  
그는 카나무라에게 말하기를 . . .  
‘바다 건너 번국들 예는 태종천황(胎中天皇, 應神) 때부터  
내관가(內官家)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의 나라는 버려지지 않고 내게 봉토 되었는데,  
이모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데 이제 신라는,  
이 본래의 명확한 봉토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월경을 해서 침략을 해왔다.  
청컨대 천황께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를 구조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 .

<sup>6)</sup>애스턴(NII: 18n)은 “통감(通鑑)의 서기 522년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왕실 혈통의 여인을 가라에 결혼시켜 보냈으며, 서기 527년에는 두 왕들이 우호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sup>7)</sup>애스턴(NII: 18n)은 “통감에 의하면 신라가 서기 520년에 분명히 중국식을 본따 관복을 제정했다고 한다. 바로 이들 복장이 가야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달에 기능말다간기에게 사신이 파견 되었고,  
임나에 있는(在任那) 케나(近江毛野臣)에게도 조서를 보냈다.”<sup>13)</sup>

서기 53년(NII: 22) “임나의 사신(任那使)이 천황께 아뢰기를 ‘케나가 쿠사무라(久斯牟羅)에 가서 사택을 짓고 살기 시작한지 2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정무를 보지않고 게으름을 피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본인(日本人)과 임나인(任那人) 사이에 빈번하게 분쟁이 생기고, 해결하기도 힘듭니다. . . . 사람들을 괴롭히고, 언제든지 화해를 하는적도 없습니다.”<sup>14)</sup> 같은 해에 (NII: 23-24) “미쯔기(調吉士)가 임나로 부터 돌아와서 천황에게 케나의 오만하고 심술궂은 성격을 고해 바쳤다: ‘그는 정사에 미숙하고, 화해를 하는 경우가 없어 가라(加羅)를 소란 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sup>8)</sup><sup>14)</sup>

서기 540년, 킨메이 원년, 일본서기(NII: 38)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任那)가 모두 함께 사신을 보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sup>16)</sup> 이 기록에서는 “임나”가 가야연맹 전체를 의미 했던것 같다. 하지만 이당시에는 이미 임나의 항구 시설뿐 아니라 가야연맹 전체의 존립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 같다.

케이타이(繼體, 서기 512년)때 백제가 야마토 조정의 양해아래 임나의 4개현을 접수 했었다는 것은 이미 얘기한바 있었다. 야마토 조정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일 때문에 “신라가 . . . 여러해 동안 원한을 품게 되었다”고 믿었다.<sup>16)</sup> 백제의 4개현 접수를 지지했던 카나무라(大伴大連金村)는 후일 자책을 하며, “여러 대신들이 나때문에 임나가 멸망 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sup>16)</sup> 일본서기(NII: 42-43)는 “임나 땅은 이제 신라와 상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탁순(탁기탄, 가라)등에게 악영향을 줄것이 틀림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NII: 42-43)는 서기541년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

<sup>8)</sup>센카(宣化, 재위 536-539년)에 대한 기록 에서도 임나에 관한 언급이 있다(NII: 35): “신라의 임나에 대한 적대행위 때문에 천황은 . . . 사데히코에게 임나에 가서 도와 주도록 명했다. . . . 그는 백제도 구원해 주었다.”<sup>15)</sup>

다: “안라 차한기(安羅次旱岐) . . . 가라 상수위(加羅上首位) . . .  
 졸마 한기(卒麻旱岐), 산반해 한기(散半奚旱岐)의 아들 . . . 자타한  
 기(子他旱岐) 등이 임나일본부 키비(吉備臣)과 함께 백제에 갔다 . . .  
 .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은 임나한기등 이들 일행에게 말하기를,  
 ‘일본천황은 임나[가야연맹]를 모두 재건 하라고 조칙을 내렸다.  
 이제 무슨 방책을 써서 임나[가야연맹]를 재건 할것인가? . . .

우리 선조 근초고왕·근구수왕 대에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世)  
 안라·가라·탁순의 한기등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통교를 시작한 이후,  
 돈독한 친선관계로 유대를 깊이했고(厚結親好),  
 우리는 그들을 자제와 같이 대해 주었다(以爲子弟).  
 우리는 그들이 계속 융성하기를 원했다.

이제 그들은 신라에게 속고, 천황을 분노케 했으며, 임나를 격분케  
 만들었다. 특기탄은 가라와 신라 경계를 따라 위치하고 있었는데,  
 매년 계속 (신라의) 공격을 받아 패망했다. 임나는 특기탄을 구원  
 해 줄수가 없었다 . . . 남가라는 협소한 땅이기에 . . . 역시 망  
 하게 되었다. 탁순은 상하가 모두 포리부동 했다 . . . 그래서 또  
 한 망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세나라는 모두 망해버  
 릴만한 이유가 있었다. 옛날에 신라는 고구려에 도움을 청해 임나  
 와 백제를 공격했었으나(昔新羅請援於高麗, 而攻擊任那與百濟), 지금  
 까지도 정복을 못했다(尙不薙之). 그렇다면 신라 혼자 힘으로 어찌  
 임나[가야연맹]를 멸망시킬수 있겠는가? 당신네들과 우리가 . . .  
 이제 힘을 합치게 되면 . . . 임나[가야연맹]는 반드시 재건될 것  
 이다.”<sup><17></sup>

일본서기(NII: 44-45)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는 안  
 라일본부(安羅日本府)가 신라와 내통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전부나솔  
 (前部奈率) 비리막고, . . . 중부나솔 목례미순, 기신(紀臣)나솔 미  
 마사등을 안라(安羅)에 파견해, 신라와 임나의 집사(執事)를 불러  
 임나(伽耶聯盟)를 재건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백제 성명왕은)

별도로 안라일본부의 가하찌(河內直)를 신라와 밀통했다하여 크게 꾸짖었다. [백제본기는 가부지비직(費直), 아현이나사, 좌로마도 등을 말했다.]. . . [성명왕은] 말하기를

‘옛날 우리의 선조 속고왕과 귀수왕(近肖古王·近仇首王)은 당시의 한기(旱岐) 등과 화친을 맺어(始約和親) 형제와 같이 되었다(式爲兄弟), 이때문에 나는 당신네들(가야의 한기들)을 자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我以汝爲子弟), 당신네들은 나를 부형으로 생각한다(汝以我爲父兄). 우리는 . . . 다함께 강적을 물리쳐 오늘날까지 국가의 안전을 지켜왔다. 내 이제 우리 선조들이 옛 한기들과 나는 그 화친의 대화들을 생각해보면, 마치 눈부신 태양을 보는것 같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웃과 선린관계를 돈독히하고, 동맹국과 항상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왔다.’”<sup><18></sup>

백제의 성명왕은 계속 말한다(NII: 45-46) “그러므로 나는 우리 앞세대의 화친 우호관계를 높이 받들어 . . . 신라한테 빼앗긴 남가라, 특기탄등을 도로 찾아, 그들 본래의 연맹관계를 회복 시키고, 임나(伽耶聯盟)에 실체를 돌려 줄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계속해 부형(父兄)의 역할을 다해줄것이며, 일본에 경의를 표할것이다 . . . [신라의]간사한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당신들이 나라를 잃고 남에게 포로가 될가 두렵다 . . . 당신네 땅을 오래동안 보존하고, 당신네 백성을 오래토록 다스리고 싶으면, 여기 바로 그 대책이 . . . .”<sup><18></sup>

일본서기(NII: 46-47)는 계속한다: “성명왕은 다시 임나일본부에 말했다 . . . ‘만약 임나(가야연맹)가 소멸되면 당신네들은 아무런 자원도 없게 될것이다. 만약 임나(가야연맹)가 다시 세워지면, 당신들은 도움을 받게 될것이다. 이제 당신들이 우리와 더불어 임나

를 재건하여 옛날과 같이 만들어 놓으면, 당신네들 한테 도움이 될 뿐아니라, 당신네 백성들도 잘 돌봐줄수 있게 될것이다 . . . 이제 일본부가 . . . 임나(가야연맹)를 구조해 준다면, 이는 천황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틀림없이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것이다 . . . 더욱이 일본 고위관리들은 신라국경에 근접한 임나땅에 오래 거주해왔기 때문에 . . . 임나에 해독을 끼치고, 일본에 저항하는 자세를 취해왔다(諷防日本) . . . [야마토]조정을 그릇된길로 꺾어내고, 임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僞和任那) . . . 신라가 임나를 병탄하기 전에 . . . 당신네들은 지금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 . . 천황이 조칙을 내려 남가라, 록기탄을 원상회복하라고 명한것이 수십년이 넘었다. 하지만 신라는 이명령을 한번도 들은척도 안했다 . . . 이제 임나(가야연맹)를 회복시키는 일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sup><19></sup>

서기 543년 쓰모리는 다음과 같은 킨메이(欽明, 재위 531-571년)의 전갈을 가지고 백제에 파견 되었다(NII: 48): “임나의 하한(下韓)에 주재하는 백제 군령성주(軍令城主)들로 하여금 임나일본부에 합류토록 하시오 . . . 지나간 10여년 이상을 당신은 임나(가야연맹)가 재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소. 임나는 당신 나라의 동량(棟梁)이요, 만약 그 동량이 절단되면 어떻게 집을 버티려 하는거요? . . . 당신은 조속히 임나를 재건해야 합니다.”<sup><20></sup>

일본서기(NII: 48-49)는 성명왕이 킨메이의 전갈을 듣고 나서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그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한에 주재하는 우리 군령성주들은 자리를 떠서는 안됩니다. (가야연맹) 재건 문제는 조속히 (킨메이) 말대로 해야 합니다 . . . 이제 임나집사(執事)들과 여러나라 한기(旱岐)들을 소환해서 공동의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 . . (하지만) 가하찌노 아타헤(河內直)아나사와 마토가 아직 안라(安羅)에 있기 때문에 임나(가야연맹)의 재건이 힘들것 같습니다. 하오니 표를 보내 그들을 그들의 본고장으로 이전 시키도록 청해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성명

왕은 (NII: 40) “시덕(施德) 고분을 보내 임나집사(任那執事)와 일본부집사(日本府執事)를 소환했다. . . . 하지만 일본부와 임나는 그들 집사를 보내지 않았다.”<sup><20></sup>

일본서기(NII: 51)는 서기 544년 백제 성명왕이 일본부경(日本府卿)과 임나한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나(가야연맹)를 재건하는 일은 천황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천황에게 군사(將士)를 청해 임나를 도우려한다. 이들 군사들을 위한 양식은 우리가 공급해 줄 것이다. 물론 군사의 수가 확정 될때까지는 식량운송 조치를 결정할수 없다.”<sup><21></sup> 성명왕은 계속 말한다. (NII: 53): “임나는 안라를 형님으로 대하고(以安羅爲兄), 안라의 의도대로 따라서 한다. 안라는 또 일본부를 하늘로 알고(以日本府爲天), 그 의도대로 따라서 한다. [백제본기(百濟本記)는 말하기를, 안라를 아버지로(以安羅爲父), 일본부를 근본으로 대한다(以日本府爲本)]. . . . 야나사와 마토는 미천한 집안 출신인데도 일본부의 정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 . . 만약 당신네들이 이두사람을 안라에 계속 주재하게 한다면, 그들이 온갖 간교한 짓을 다 할것이기 때문에 임나를 재건 시킬수 없을 것이고, 또 여기 바다 서쪽의 여러 나라들이 일을 도모할수 없게 만들것이다.” 킨메이로 부터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NII: 53): “이쿠바등이 신라에 왕래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요. . . . 이미 말한대로 임나가 재건되면 야나사와 마토가 자연히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되풀이 해서 또 얘기할 필요가 있겠소?”<sup><22></sup>

서기 54년 백제는 킨메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N I 54-55): “신라는 매년 봄·가을에 안라와 하산(荷山)을 공격하기 위해, 흑자는 말하기를 가라를 공격하기 위해, 많은 수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한다. . . . 이때문에 나는 임나를 지킬 군사를 파견했고. . . . 그래서 신라가 감히 임나를 침략하지 못한것이다. . . . 그런데도 불구하고. . . . 백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급할때 구원을 해줄 능력이 없다고 보고가 되는 모양이다. . . . 이것은 천조를 기만하는 짓이다. . . . 좌로마도는 한국여인의 아들이

지만, 오오무라지(大連)의 지위를 가지고 일본집사들 사이에서 상석을 차지하고 있다. .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신라의나마레 관위(奈麻禮冠)의 관을 쓰고 있으니, 그가 신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 . 록(이탄)국이 멸망한 것도 딱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때문인 것이다.”<sup>(23)</sup>

서기 544년 성명왕이 키비(吉備臣)와 한기들에게 말한 장문의 내용이 일본서기에 또 나타난다(NII: 56-58): “임나의 나라들은 자고로 우리 백제와 자제관계를 맺어 왔었다(約爲子弟). 이제 일본부의 인지미는 이미 신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 . 인지미를 임나에 보낸것은 결코 그 나라를 침략하고 해치고자 한것이 아니었다. 옛날부터 바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라는 무도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때문에 우리의 충실한 맹방인 탁순이 멸망 되었다. . . 임나의 나라들(가야연맹)을 다시 세워 옛날과 같이 되고, 영원히 형제로서 함께 살수 있기를 바란다(永爲兄弟). . . 신라와 안라 두 나라 경계에는 큰강이 있는데, 나는 그 요해지에 여섯개의 성을 축조하고자 한다. . . . 각성마다 5백명을 충원하기 위해 천황에게 3천 병사를 청하고자 한다. . . 여기에 우리병사를 합치면. . . 탁순(卓淳)을 부흥시킬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천황한테 청하는 군사들의 피복과 급식은 우리가 제공 할것이다. . . . 남가라(南韓)에 군령·성주(軍令·城主)를 배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 . 신라를 공격하고 임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현 위치에 그대로 존속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sup>(24)</sup> 이 말을 듣고 키비(吉備臣)와 한기등은(NII: 58) “우리는 그럼 이제 되돌아가서 일본대신(日本大臣), 안라왕, 가라왕께 여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서기 545년(NII: 59) “백제는 중부호덕(中部護德) 보제등을 임나로 보내 일본대신과 여러 한기들에게 등급에 맞추어 선물을 전해 주었다.”<sup>(24)</sup>

서기 553년(NII: 69) “백제는 상부나솔 과야를 보내 천황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를 올렸다. . . . 금년에 듣자하니 신라와 고구려가 밀통해 음모를 꾸미기를, ‘백제와 임나가 일본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은 필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얻으려는 의도일 것

이다. . . 일본군병이 도착 하기전에 안라를 공격해 취하면, 일본과의 길을 끊어 버릴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계획이요.”<sup><25></sup>

서기 562년조에 일본서기(NII: 80-82)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임나 관가(任那官家)가 신라에 의해 타멸(打滅)되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임나가 멸망되었다.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임나라 하면(總言任那, 가야연맹), 가라국, 안라국, 사이기국, 다라국(多羅國), 졸마국, 고차국, 자타국, 산반하국, 걸손국, 임례국, 도합 10 개국을 말한다> 조서에서 말하기를 ‘서쪽에 살고 있는 비열한 종족 신라놈들은 . . . 우리가 베푼 은의도 무시 하면서 우리의 관가(官家)를 부시고, 우리 백성들을 독살하고, 우리의 군현을 도륙을 냈다. . . 우리조상 오키나가(氣長足姬尊, 神功)가 언제 신라를 박하게 대했으며, 우리 백성들이 신라에 대해 언제 원한을 품었었느냐? 한데 신라는 장창과 강궁을 가지고 임나를 도살했다. . . 우리와 함께 그 원수를 갚자. . . 이 쓰라린 마음. . . 죽어 땅에 묻혀서도 분노하리라. . . .’<sup><26></sup> 서기 571년(NII: 89) 킨메이는

“병환으로 자리에 누어. . . 태자를 불러 들었다. . .

그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 . . 신라를 공격해서 임나를 세우고(封建任那),

옛날처럼 부부와 같은 관계를 회복시켜라(更造夫婦).

이것이 이루어 지면 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sup><26></sup>

임나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채로 남아 있다. 일본 서기(NII: 19 & 42)에 의하면, 케이타이때 남가라와 록이탄이 망한다음, 임나가 신라와 경계를 서로 맞대게 되었다 한다. 일본서기(NII: 47)는 또 서기 542년(킨메이 3년 7월)에 “백제가 기신나솔(紀臣奈率) 미마사와 중부나솔 기연을 보내, 천황한테 하한(下韓) 임나의 운영에 대해 보고 토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그 보고라는 것이, 틀림없이 항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임나는 분명히 가야연맹의 성읍 국가들중 해안가의 최남단에 위치한 나라였을 것이다.

특기할것은, 일본 사학자들이 우리가 이절에서 제시한 기록들은 모두 읽어 보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그들은 거의 모두가 일본이 한국의 남부에 “식민지”를 2세기 이상 운영했었다는 결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 (4) 뱃길 출발점의 항구지역과 왜인의 거주

일본서기(NII: 257)는 오오진 7년(應神, 서기 396년) “고구려사람, 백제사람, 임나사람, 신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조정에 왔다. 다케노우치에게 명해 이들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저수지를 만들도록 했다. 그때문에 그 저수지는 한인지(韓人池)라 명명되었다.”<sup>(28)</sup> 이 기록에서는 임나가 가야연맹 전체를 나타냈던것 같다. 아무튼 이 얘기는, 서기 396년 당시 미마나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백제와의 자연스럽고 친밀한 관계때문에, 역대 야마토 지배자들은 “오고 가는 길목(往還路驛, NI: 250 참조) 역할을 할수 있는” 가야의 통로 맨남쪽 끝에 항구시설을 유지하려 했었던것 같다.<sup>(29)</sup> 이와 같이 항구 시설을 유지하려는 야마토 지배자들의 노력이,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한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 하려는 일본사람들에 의해, 일본이 남한땅에 2세기 이상 식민지를 보유 했었다는 얘기로 변조된것 같다.

야마토 지배자들은 일본으로 부터 최단거리의 직항로로서, 가야의 남쪽끝에 항구시설을 (자연히 일단의 일본 거주민들과 함께)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가야의 왕으로부터 허락 받았던것 같다. 일본서기(NII: 17-18)는, 백제가, 이들 항구시설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편리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직접 점유하려 하자, 가라왕(加羅王)이 크게 노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일본서기는 임나(미마나)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항해 통로상의 항구”가 있었고, 또 그곳에는 임나국사(任那國司)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을 우두머리로 하는, 임나일본부라 불리우는 공공기



관이 존재 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서기는 동시에 그곳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왕들과 동열에 서는 “임나왕(任那王)”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서기는 그 항구 시설내의 일본사람(日本人)과 임나사람(任那人) 사이에 빈번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사람들이 “임나일본부”라고 부르는 그 존재의 성격은 기껏해야 1609-1856년 기간중에 외국인이 사용하게된 나가사키의 화란상관(商館)과 비교해 볼수 있을 것이다.<sup>9</sup> 사실 후세의 조선왕조 때에는, 큐우슈우 바로 건너편 한국남단에 위치한 부산(釜山)항구가, 일본과의 선박과 화물의 왕래를 위한 주요 항구 역할을 했다. 이 부산 지역에서는 일본사람들이 조선 관리들의 감시하에 주거가 허용 되었었다.<sup>10</sup>

일본서기(NII: 8)는 당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며 즐겼던 이야기들중의 하나를 소개한다: “본래 스미요시 대신(夫住吉大神)은 아직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 있던 예전천황(胎中譽田天皇, 應神)에게, 바다 건너의 금은 보화의 나라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등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가 황후(大后息長足姬尊, 神功)와 다케노우

<sup>9</sup>배튼(1986)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미마나를 통치 했다고는 얘기할수 없지만, 일본 조정은 미마나에 일종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했던것 같다. 이런 역할은 미마나의 족장들에 의해 참고 건디어 진것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두개의 강력한 이웃, 특히 신라에 대한 대항세력의 존재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이들[가야연맹]족장들에 의해 부추김을 받은 역할 이었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구도는 고대로부터 그 지역에서 도입되어 온 철과 선진 대륙문화를 계속 받아 들일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sup>10</sup>이기백(1984: 191-192)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 조선 정부는 타협적인 태도를 취해 일본인들에게 제한된 교역의 특권을 주었다. 한국의 남동해안 지역을 따라 내이포(乃而浦, 熊川), 부산포(富山浦, 東萊), 염포(鹽浦, 蔚山)등 세개의 항구가 그들에게 개방 되었고, 세군데 모두 왜관(倭館)이 설치되어 일본인들이 업무를 볼수 있었다. . . 얼마후 서기 1510년, 이 세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상당기간 불화관계에 있었던 한국 주둔군 사령관에 대항해서 무장봉기를 했다. . . 이 무장봉기가 진압된 다음에 그 세항구 에서의 일본인의 특권이 박탈되었다. . . 서기 1512년에. . . 교역이 다시 허용 되었다.”

치(武內)대신은 이들 나라에 각기 미야케(官家)를 설치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바다 건너 방벽 노릇을 하도록 했다.”<sup>30)</sup>

일본사람들이 임나에 설치했다고 상상하는 미야케(官家)는, 그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설치 했다고 상상하는 미야케와 똑같은 것이다. 즉, 다같이 허상인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일본서기를 제외하고 “임나일본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역사책이 한권도 없다. 고사기도 구다라(백제), 시라기(신라), 코마(고구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임나일본부”라는 기록은 한군데도 없다. 분명히 야마토 조정의 역사가들은 고사기를 다 편찬하고 난 다음에야, 임나 뱃길 출발점에서 항구시설을 돌보던(얼마간의 병력을 포함한) 왜인들의 존재를 임나일본부라는 거창한 존재로 조작할 착상을 하게 된 것 같다.<sup>11)</sup> 아오키(1974: 5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의 국수주의 역사가들은 . . .  
 변한(弁韓)사람들이 오랜기간동안  
 일본사람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맹렬히 주장하고 있지만. . .  
 아마도 사실은 그 정반대 였을 것이다.  
 변한 [가야연맹] 사람들은 북부 큐우슈우와  
 혼슈우 서쪽끝 지역을 그들 자신의 영토로 생각했었고,  
 이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들 자신과 같은 종족으로,  
 또 교역상대자로 생각했다. . .  
 부두에는 상관(商館)과 창고들이  
 준비하게 들어서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변한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더 많이 이주해 감에 따라  
 (서기 380년경) 본래의 항구자리는

<sup>11)</sup>북한의 김석형(金錫亨)은 왜(倭)라는 표현은 한국사람들이 (즉, 고구려, 신라, 백제 사람들이)일본땅에 세운 수많은 한국계통의 분국들(朝鮮系統諸王國, 分國)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왕국들은 6세기가 될때 까지도 야마토 왜에 의해 정복되지 않았었고, 소위 임나일본부란 이들 분국들을 통제하기 위한 한국의 관청 이었다고 주장한다. (히라노, 1977, 참조.)

이들의 교역 화물 보관소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장소가 임나(미마나)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 .”

사실기록의 빈곤은 역사가들로 하여금 공상에 빠지게끔 유혹을 한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고대사에 관한 대부분의 일본 사학자들은 역사가 이기보다, 19세기 제국주의자들 선전도구의 충실한 대변자로 전락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소위 그 친일적인 서양학자들이란 사람들은, 이들 일본 식민지주의자들이 주서대는 왜곡된 얘기들을, 창피한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오히려 한술더떠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후(1971: 3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은 항상 주요 문화적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 했었다. . . 역사적, 지리적 환경이 일본으로 하여금 주로 문화적 혁신의 수용자 혹은 차용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 . 일본의 독특성이란, 크뢰버의 말을 빌린다면, 빌려온 요소 예다가 외양적인 세련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 . 이와 같이 강도높은 외래문화의 차용은, 일본인들의 문화 제공자에 대한 열등의식을 심화시켰다. 사회심리학 용어를 빌린다면, 일본사람들의 준거(準據) 집단 — 개인이 그 속에 수용되기를 바라는 집단 — 은 항상 문화적으로 혹은 과학기술적으로 우월한 국가였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이러한 열등의식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되기 시작했는지 알수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우월한 문화에 비교해서 그들 문화의 상대적 위상을 향상시켜 보려는 욕구와 연관 시켜서 분석해 보아야 할것같다.” 아무튼 일본 사학자들과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일고대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왜곡시키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지금 위에 말한 일본 사람들의 열등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만 할것이다.